

2018. 5. 17



▲ 인터넷/게임

Analyst 김동희

02. 6098-6678

donghee.kim@meritz.co.kr

RA 윤을정

02. 6098-6673

euljeong.yun@meritz.co.kr

Overweight

인터넷

혁신은 개방 속에 있다
(Innovation in the Open)

- ✓ 5월 첫째주 ~ 둘째주에 연이어 구글과 페이스북은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 이번 컨퍼런스의 화두는 구글은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페이스북은 VR(Virtual Reality)이었음. 또한 양사 모두 '뉴스' 콘텐츠의 중요성 강조하며 경쟁력 강화
- ✓ 올해 한국의 AI와 VR 역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주도 하에 성장의 변곡점 기대
- ✓ 드루킹으로 촉발된 뉴스 서비스 사태는 NAVER에 이어 다음으로까지 확대. 국내 인터넷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응원하는 전략도 필요한 상황

혁신은 개방 속에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매해 글로벌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2018년 개발자 컨퍼런스의 화두는 구글은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페이스북은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이었다. 구글은 '구글 듀플렉스'라는 AI가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페이스북 역시 '오쿨러스 GO'라는 대중화 가능한 독립형 VR 기기를 출시했다. 한편, 양사 모두 '뉴스' 콘텐츠의 중요성 강조하며 경쟁력 강화하였는데 구글은 'For You', '뉴스스탠드', '풀커버리지'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페이스북 역시 'Fake News'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 AI 고도화

2018년 하반기부터 구글 어시스턴트로부터 존 레전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며 다양한 목소리, 기기, 언어, 국가로 확대된다. '구글 듀플렉스'는 AI가 사람처럼 전화를 걸어 예약해주는 서비스로 딥러닝을 통해 정교한 언어구사 및 뉘앙스와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진화되었다.

페이스북 -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의 결합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메신저, 왓츠앱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하며, 그 예로 인스타그램에서도 영상과 그룹채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오쿨러스GO' 출시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VR 대중화에 앞장선다.

국내 인터넷 플랫폼의 고전, 반전은 언제쯤?

2018년 국내 인터넷기업의 주가수익률은 NAVER -20.9%, 카카오 -20.1%, NHN엔터테인먼트 -3.3%로 부진하였다. 이는 규제 리스크 때문으로 쇼핑/뉴스/웹보드게임까지 규제 리스크가 유지되거나 강화되었다. 또한 국내 인터넷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의존도가 광고수익에 편중된 반면, 글로벌 사업자들은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로 본격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Contents

1. 구글 I/O 2018 - 혁신은 개방 속에 있다	3
1. 5월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	3
2. AI(인공지능), 헬스케어와 결합	4
3. G 메일, 구글 포토에도 AI 도입	5
4. 구글 렌즈, 지도/증강현실과 결합	5
5. 구글 어시스턴트의 진화	7
6. 뉴스 서비스에 힘주는 '구글'	9
7. JOMO(Joy of Missing Out)	10
8. 구글 지도, AI/AR 기술 적용	12
9. 웨이모 자율주행차, 로봇택시 서비스 시작	12
2. 페이스북 F8 2018 - Facebook Reality	14
1. 페이스북, 개발자 컨퍼런스 'F8 2018' 개최	14
2. 가상현실과 현실세계의 결합	15
3. Oculus Go 출시, VR 대중화 원년	17
4. 소셜 데이팅 시장 진출	20
5. Fake News와의 싸움	22
3. 국내 인터넷플랫폼의 반전은 언제쯤?	23

I. 구글 I/O 2018 - 혁신은 개방 속에 있다

1. 5월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

‘혁신은 개방 속에 있다(Innovation in the Open)’

– 구글 I/O의 의미

구글의 혁신제품과 신기술
먼저 접할 수 있는 자리

2018년 5월 8~10일 구글은 개발자 컨퍼런스 ‘구글 I/O’를 개최했다. 구글 본사 옆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키노트 행사에는 전세계 7,000명 이상의 개발자 및 파트너가 참석했다. ‘구글 I/O’는 매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로 구글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자리이며 I/O는 입력을 뜻하는 ‘Input’과 출력을 뜻하는 ‘Output’을 의미한다.

기술의 힘과 혜택
기술이 가지는 과제
구글의 역할

“기술은 전세계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와 함께 책임도 따른다.
구글은 기술의 힘을 믿으며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이러한 기술이 가지는 과제도 생겨났다.
구글은 기술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순다이 피차이 CEO

2018년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의 핵심은 AI 고도화였으며, AI 기술이 G메일, 구글 포토, 헬스케어, 뉴스 등에 어떻게 녹아들어 정교화되는지 보여주었으며 안드로이드P, 구글 듀플렉스, 구글 렌즈 등 새로운 플랫폼과 서비스들을 공개하였다.

그림1 2018 구글 I/O 컨퍼런스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순다이 피차이 CEO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2. AI(인공지능), 헬스케어와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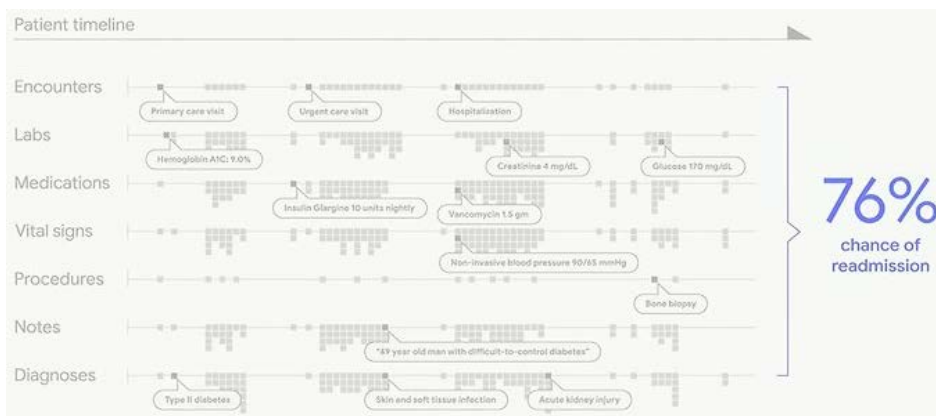
의료행위 보조 가능

“헬스케어는 AI가 진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

구글 AI 기술은 안구 스캔을 통해 나이, 성별, 흡연 여부, 혈압 등의 생체 정보를 파악하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도 있는데 머신러닝을 통해 의료기록을 분석하면, 전통적인 방법보다 24~48시간 빠르게 환자의 10만개에 달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입원확률이 76%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환자의 향후 질병의 타임라인과 시기에 맞는 처방, 치료가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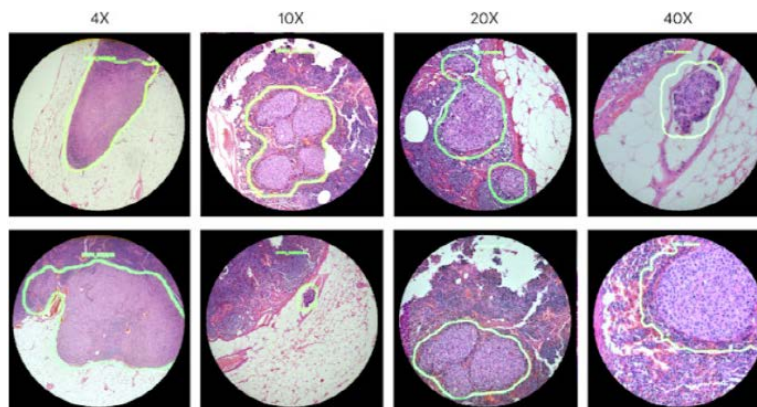
또한, 구글은 암세포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AR현미경을 개발하였다. 의사들이 암을 진단할 때 조직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복잡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딥러닝 기술을 광학 현미경에 적용하여 사람의 조직 사진에서 암세포를 검출하는 학습을 거친후 인공지능은 입력된 사진을 분석해 암세포를 감지한 다음 암세포 부분에 윤곽선을 표시해주게 된다.

그림3 Predicting Medical Events



자료: 구글, 메리츠총금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구글의 AR 현미경으로 찾아낸 암세포의 모습



자료: 구글, 메리츠총금증권 리서치센터

3. G 메일, 구글 포토에도 AI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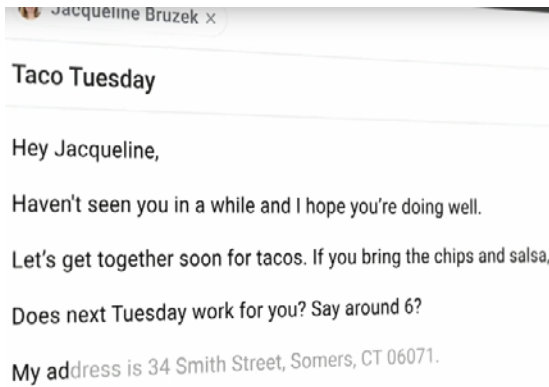
AI가 사용자의 의도 파악,
문구 추천

G메일에는 메일 작성 시 표현이나 문구를 추천해주는 'Smart Compose(스마트 답장)'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용자는 머신러닝을 이용해 쓰고자 하는 첫 문장을 제공받고 '잘 지내고 있냐'는 일상적인 인사 후 탭을 눌러 문장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문구를 추천하며, 버튼 하나로 문장을 입력해 메일 작성이 좀 더 간편해지도록 돕는다.

구글 포토에도 AI 도입

구글 포토에도 AI 기능이 도입되며 저장해두고 싶은 문서의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인식하고 pdf 파일로 변환시켜 다음에 사용하기 편하게 한다. 또한 보관하고 싶은 소중한 흑백사진의 경우 사진의 밝기 및 선명도를 자동으로 보정하여 현실감 있는 사진으로 변모시킬 수도 있다. 또한 AI 추천 기능의 경우 친구의 사진을 전송할 때 AI가 앨범에 있는 사진들 중 같은 친구가 포함된 사진을 구분하여 자동으로 추천한다.

그림5 G메일의 'Smart Compose' 기능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손쉬운 사진 보정이 가능해진 구글 포토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4. 구글 렌즈, 지도/증강현실과 결합

구글 렌즈와 카메라의 결합

구글 렌즈(카메라 기반 AI 서비스)는 한층 진화된 기능을 선보였다. 구글 렌즈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구글 맵을 결합시켜 거리 뷰를 증강현실 화면으로 재구성한다. 카메라 화면에 주변 장소들과 이용자의 도보 경로 및 방향을 보여주고, 주변 상점의 정보를 팝업 카드로 보여주며, 가상의 길 안내 가이드를 추가할 수도 있다.

'스마트 텍스트 선택'을 이용하면 구글 렌즈를 통해 단어를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글렌즈로 포스터, 상점 간판, 메뉴판 등의 인쇄된 텍스트 이미지를 촬영하면 카메라 화면의 텍스트가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메뉴판의 메뉴를 구글렌즈로 스캔한 후 웹에서 음식 정보 및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다.

'스타일 매치'는 구글 렌즈로 물건을 비추면 해당 제품의 정보를 웹에서 찾아 보여주는 기능이다. 옷이나 인테리어 제품을 비추면 유사한 제품, 판매하는 쇼핑몰, 가격 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제시한다. 영화 포스터나 책을 비추면 홍보영상, 저자, 상영 기간 등의 정보를 웹에서 찾아 보여주는 리얼타임 검색 기능도 추가되었다.

그림7 구글 렌즈, 픽셀폰에서 다수의 기기로 확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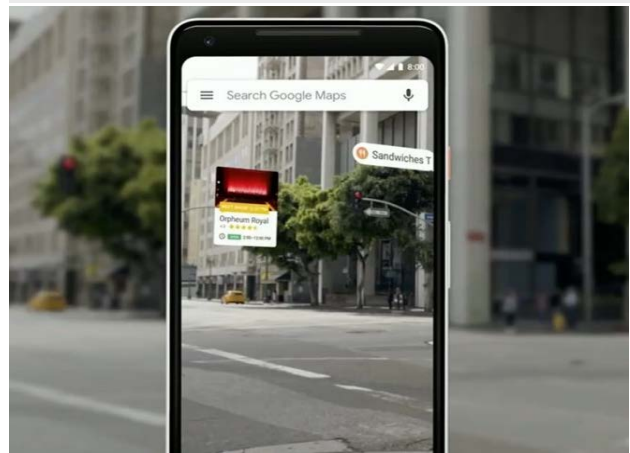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구글 렌즈와 카메라 결합, AR 길 안내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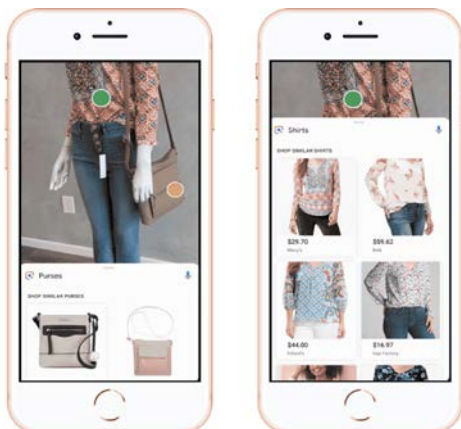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구글 렌즈와 맵 결합 - 주변 거리 및 상점 정보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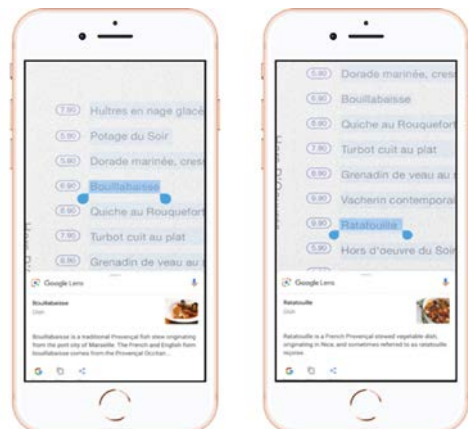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스타일 매치 - 구글 렌즈로 제품 정보 검색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스마트 텍스트 셀렉션 - 인쇄된 글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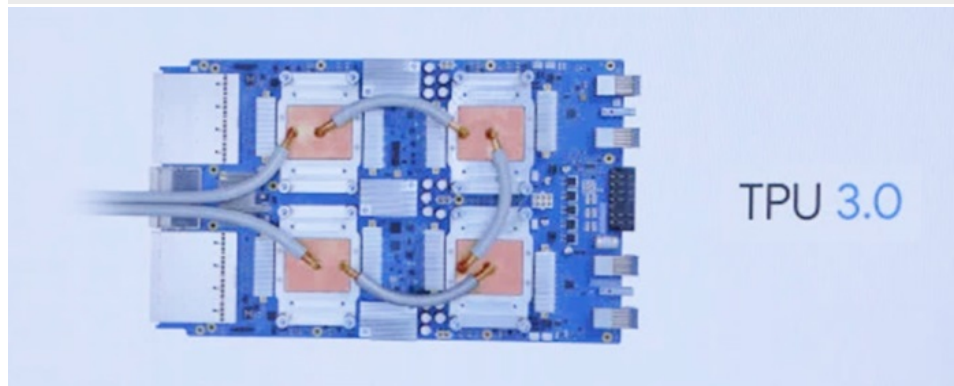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TPU 3.0 공개

이런 모든 AI 구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차세대 TPU(Tensor Processing Units, 구글이 자체개발한 인공지능 전문칩)인 'TPU 3.0'과 새로운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도 공개되었다. TPU는 구글의 AI 및 머신러닝의 엔진이며 2016년 1세대, 2017년 2세대에 이어 2018년 3세대를 공개했다. TPU 3.0은 지난해 공개되었던 TPU 2.0에 비해 8배 속도가 빨라졌는데 속도는 100페타플롭스로 1초에 10경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속도다. 또한 수냉식 데이터센터 쿨링시스템도 소개했는데, 기존 공랭식대비 냉각효율이 향상되었으며 액체를 통한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 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림12 TPU 3.0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5. 구글 어시스턴트의 진화

구글 듀플렉스 - AI 비서 등장

2018년 하반기에는 구글 어시스턴트로부터 존레전드를 비롯한 6개의 새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또한 'Hey Google' 이라는 대화 시작 명령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며 곧 업데이트된다. 다중 명령은 한번에 여러 명령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하나의 문장에 여러가지 질문과 명령이 섞여 있어도 각각의 지시사항을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다.

2018년 여름에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한 서비스 예약 및 간편 결제 서비스가 도입된다. 스타벅스, 던킨도너츠 등과 제휴를 맺었으며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가능하다.

'구글 듀플렉스'는 AI가 사람처럼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예약해주는 서비스이다. 딥러닝을 통해 정교한 언어 구사가 가능하고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판단해 반응한다. 예를 들면,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이 불가능할 경우 AI가 가능한 시간을 판단해 시간을 조정한 후 예약을 진행한다. 상대방의 뉘앙스와 현재 상황 등을 판단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했다. 미국 중소 식당의 60%는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데, AI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 듀플렉스'는 곧 구글 어시스턴트에 테스트 버전으로 도입되며 2018년말까지 80개 나라에 35개 언어로 출시된다.

그림13 구글 듀플렉스와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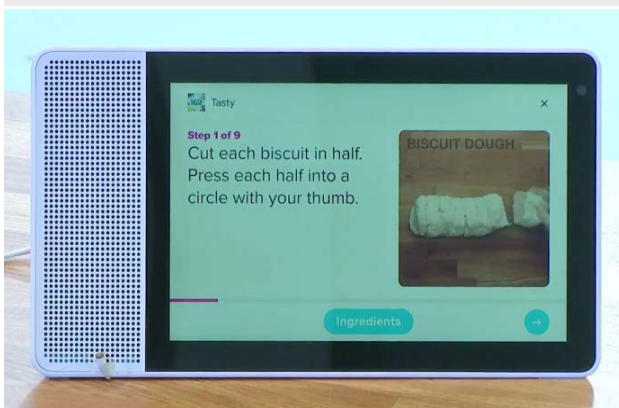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스마트 디스플레이 탑재된 AI 스피커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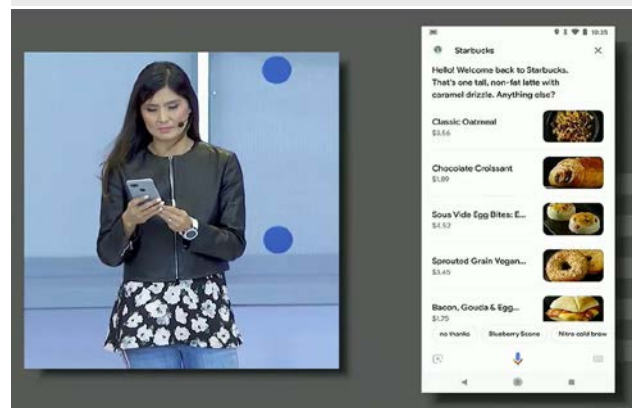
2018년 7월 구글은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스피커를 출시한다. 지금까지 구글 어시스턴트가 음성 대화에만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시각적 경험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스피커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유튜브 영상, 구글 레시피 검색, 영상통화 등을 음성 명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피커의 하드웨어 개발은 JBL, 레노버, LG가 담당한다.

그림14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구글 AI 스피커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음식 주문 및 결제 가능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6. 뉴스 서비스에 힘주는 '구글'

AI 큐레이션 기능 강화한
새로운 뉴스 서비스 출시

구글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콘텐츠 큐레이션이 강화된 뉴스 서비스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 구글 뉴스 서비스는 '뉴스 For You', '헤드라인', '폴 커버리지', '뉴스스탠드'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된다.

뉴스 For You

'뉴스 For You'는 AI 기반의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이다. 이용자의 관심사를 파악해 적절한 뉴스를 제공하는데, 뉴스 서비스 화면 상단에 중요한 Top 5 뉴스를 우선 노출하고, 이후에는 AI를 통해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들을 선별해 배열한다. 이용자의 지역과 관련된 뉴스도 제공되며 유튜브를 통해 뉴스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헤드라인

또한, 중요한 뉴스는 '헤드라인' 탭에 노출되는데 헤드라인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뉴스를 모아 보여주는 페이지로, AI 큐레이션 서비스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콘텐츠 편식을 막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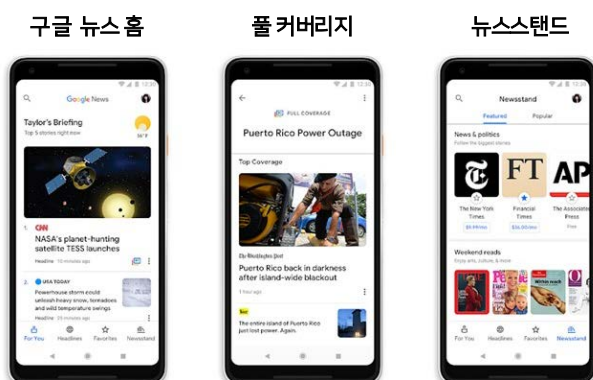
폴 커버리지

'폴 커버리지'는 특정 주제에 대한 다양한 언론사의 보도들을 한꺼번에 모아 보여준다. 시간이 경과한 뉴스의 경우에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타임라인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며, 자주 하는 질문과 다양한 출처의 트윗들을 제공해 해당 주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가 폴 커버리지 탭에서 표시되는 내용을 편집하며 개인의 관심사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은 결과가 노출된다.

뉴스스탠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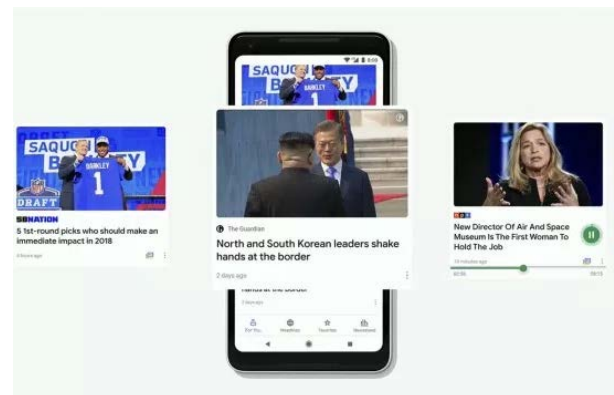
'뉴스스탠드'는 선호하는 언론사를 선택해 해당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중점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각 언론사의 유료 콘텐츠를 구글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의 일부 콘텐츠의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다. 구글은 총 1,000여곳의 언론사 및 잡지사와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언론사는 트래픽 수익 외에도 유료 뉴스를 통해 신규 수익원을 창출한다.

그림16 새로워진 구글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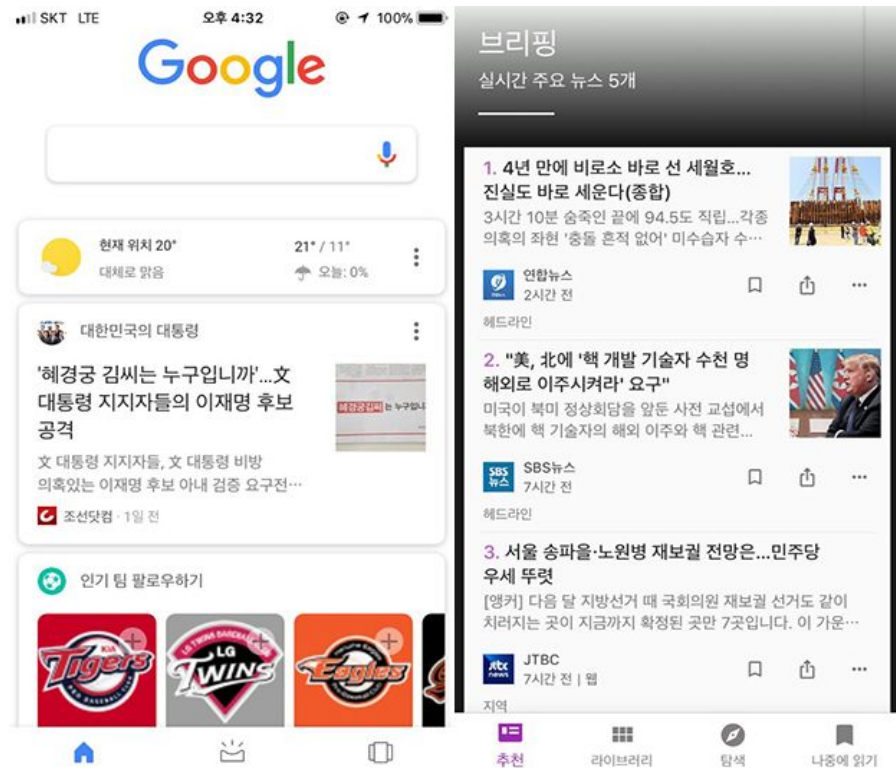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뉴스 For You' - 맞춤형 뉴스 제공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구글 앱'과 '뉴스스탠드'에서 제공되는 뉴스 서비스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7. JOMO(Joy of Missing Out)

안드로이드 P Beta 오픈

구글은 차세대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P'도 공개하였다. 5월 8일부터 안드로이드 P의 베타버전은 구글 픽셀을 비롯한 7종류의 기기에서 오픈되었다. 순다이 피차이 CEO는 안드로이드P를 공개하며 '디지털 웰빙'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는데 FOMO(Fear of Missing Out, 정보를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 대신 JOMO(Joy of Missing Out)를 강조했다. 이는 구글이 사용자가 휴대폰을 덜 사용하도록 도움으로써 디지털 웰빙을 구현해간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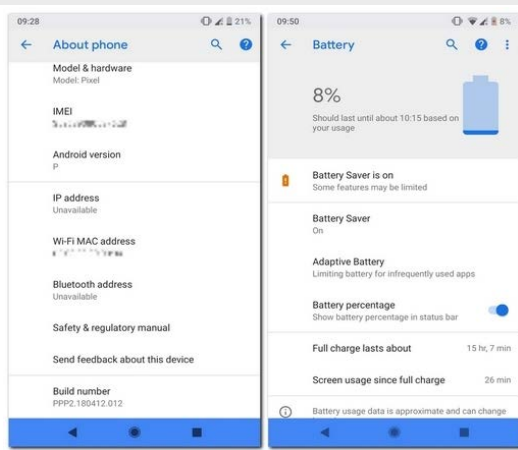
디지털 웰빙

구글은 안드로이드 대시보드를 통해 이용자가 얼마나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는지 보여준다. 하루 동안의 인터넷 이용시간, 전화, 이메일 수, 주로 이용하는 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앱이 배터리 소모를 많이 시키는지, 매일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사용자의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한 앱은 무엇인지 보여준다. 더 나아가 패밀리 링크는 자녀의 인터넷 활용 시간을 파악하고 제한하는 기능이며, 'Shush'는 방해 금지 모드로 스마트폰 화면이 아래로 가도록 뒤집어 놓으면 자동으로 방해 금지 모드로 전환되어 알림음 및 진동이 울리지 않게 된다. 'Wind down'은 잠들기 전 등 미리 설정해둔 시간에 모바일 화면이 흑백으로 변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기능이다.

둘째, 구글은 6월 슬라이스와 앱 액션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앱 액션은 사용자가 어떤 앱을 작동시킨 후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기능이다. 슬라이스는 특정 앱에서 자주 취했던 행동 등을 미리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리프트 앱에서 집으로 가는 차량을 호출하는 행동이 하나의 슬라이스 액션으로 저장되어 앱 실행시 해당 액션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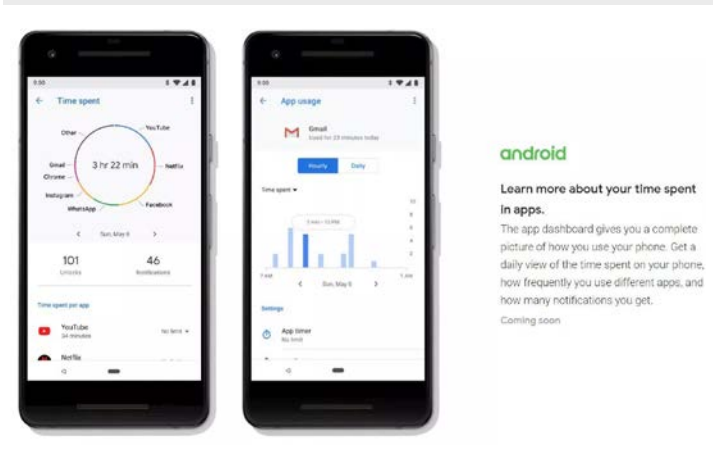
또한, 어댑티브 배터리는 머신러닝을 통해 이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파악한 후 필요할 때만 해당 기능을 실행해 배터리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이다. 답마인드와 함께 개발했으며 배터리 효율이 30% 이상 개선된다. 어댑티브 밝기는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를 이용자가 선호하는 수준으로 자동 조정하는 기능이다.

그림19 어댑티브 배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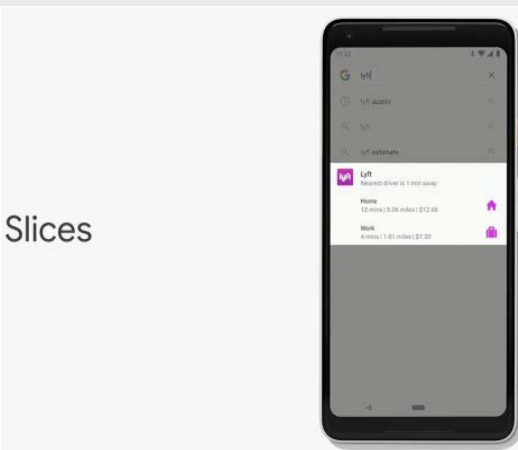
자료: 구글, 메리츠총금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안드로이드 대시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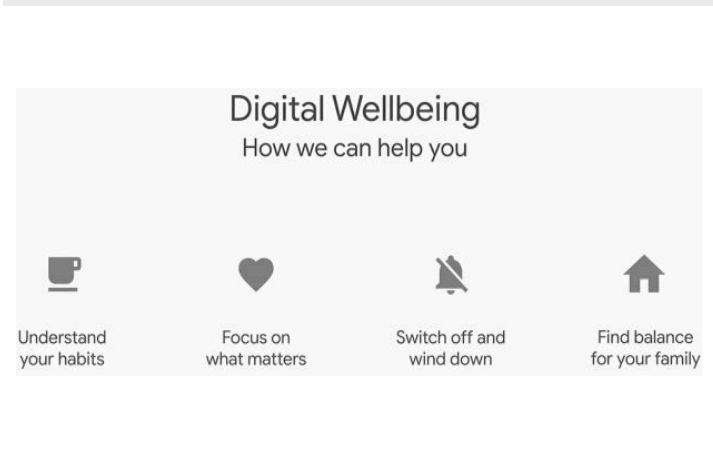
자료: 구글, 메리츠총금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슬라이스 기능



자료: 구글, 메리츠총금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안드로이드 P, 디지털 웰빙 강조



자료: 구글, 메리츠총금증권 리서치센터

맞춤형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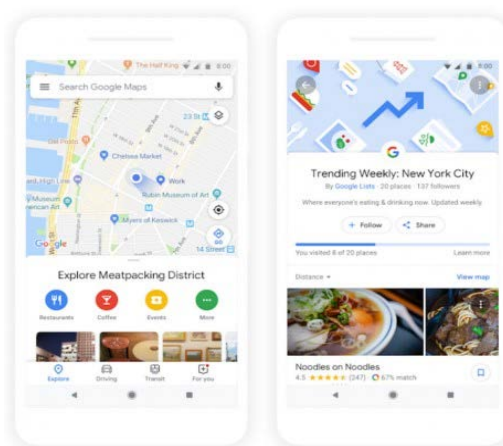
8. 구글 지도, AI/AR 기술 적용

구글 지도는 탐색과 For You 탭을 강화해 10억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더욱 개인화된 콘텐츠를 보여줄 계획이다. 사용자 근처의 레스토랑, 기업,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고 새로운 가게의 오픈 소식을 전하는 등의 맞춤형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유어 매치(Your Match)의 경우 사용자 취향에 맞을 것이라고 판단한 업체가 표시되고, 참석자들이 공유할 쇼트리스트(Shortlist)를 작성해 단체 문자를 통해 링크를 전송하고 친구들이 추천이나 반대 등 선호를 표시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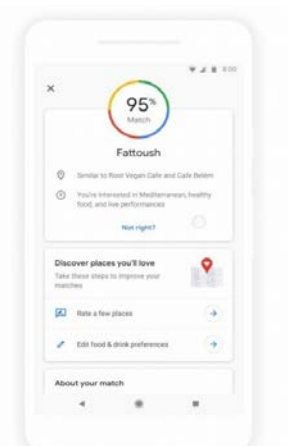
구글의 개인화된 지도 콘텐츠는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추후 구글 렌즈, 구글 데이 드림을 통해 구글 지도의 가상영화와 같은 특징은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23 구글 지도
- 주변 장소 표시 기능 강화



자료: 구글, 메리츠총금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지도 피드 - 이용자 취향 분석해
장소의 취향 부합도 제공



자료: 구글, 메리츠총금증권 리서치센터

9. 웨이모 자율주행차, 로봇택시 서비스 시작

2018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자율주행차 기반
로봇택시 출시

존 크라프치 웨이모 CEO는 "웨이모는 단순히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기술의 고도화된 연구"라고 언급했다.

2018년 웨이모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자율주행차 웨이모를 활용한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용자는 웨이모 모바일 앱을 활용해 로봇택시를 불러 이용할 수 있다.

웨이모는 AI 기술 도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는데, 구글 신경망과 딥러닝을 활용해 수개월만에 보행자 탐지 오류 발생률을 1/4에서 1/400까지 100배 감소시킨 사례를 제시했다.

웨이모 자율주행차는 AI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 차량 등 장애물의 형태, 위치, 크기 등을 파악해 장애물을 회피한다.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탐지해 속도 감속, 사고를 피할 수 있으며 눈이 오는 날 등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눈에 덮인 장애물을 파악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웨이모의 실제 일반 도로 자율주행 누적 거리는 600만 마일에 도달했으며, 텐서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50억마일에 이르는 거리를 주행해 운행 정확도가 15배 상승했다.

그림25 웨이모 자율주행차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Way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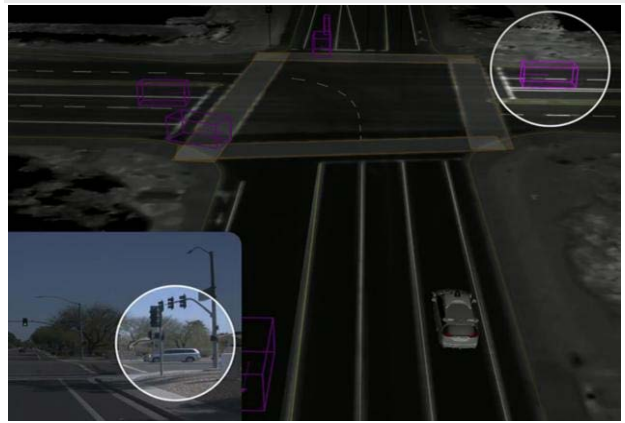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7 웨이모에 대해 발표하는 존 크라프치 웨이모 CEO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신호위반 차량을 감지하는 웨이모 자율주행차



자료: 구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II. 페이스북 F8 2018 - Facebook Reality

Clear History

1. 페이스북, 개발자 컨퍼런스 'F8 2018' 개최

2018년 5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페이스북의 개발자 컨퍼런스 'F8'이 개최되었다. 2018년 봄 마크 주커버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클리어 히스토리'라는 개인정보 제어 기능을 발표하며 페이스북은 이제 가족과 친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커뮤니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컬러스 GO를 통해 디지털과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가상현실 구현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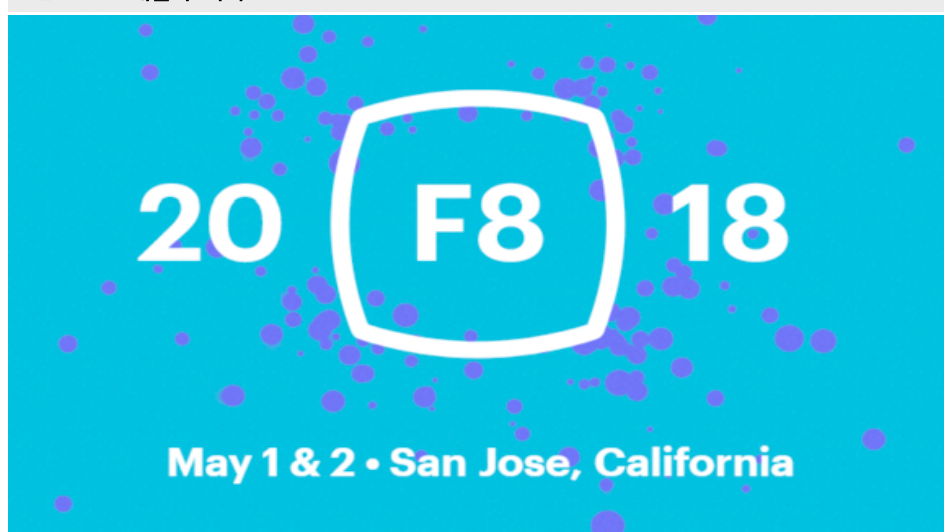
"I believe we need to design technology to bring people closer together,"
 "If we don't work on this, the world isn't moving in this direction by itself."

이번 F8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은 1) 페이스북의 소셜데이팅 시장 진출, 2) 오컬러스 GO의 출시, 3) Privacy 강화(클리어히스토리:웹기록 삭제), 4) 페이스북 메신저 앱의 개선, 5)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엘프 오픈고'의 개발 등이었다.

F8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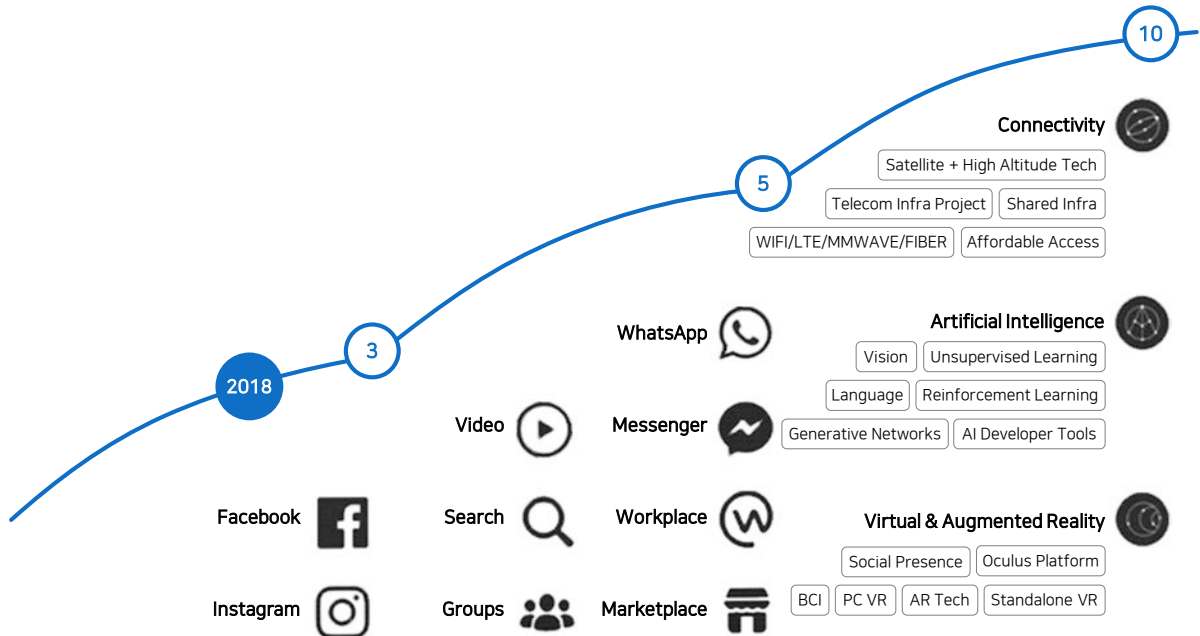
참고로, 페이스북의 개발자 컨퍼런스 'F8'은 20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페이스북 창업 초기 8시간씩 진행되던 '해커톤' 행사 때문에 F8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2014년부터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매년 F8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향후 사업 방향성 등을 공개한다.

그림29 F8 개발자 회의



자료: 페이스북,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페이스북의 2018년 이후 로드맵



자료: 페이스북,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2. 가상현실과 현실세계의 결합

페이스북의 끊임없는 진화

마크 주커버그는 물리적인 현실이 가상현실로 대체될 것을 강조했다. 로마에 여행을 갔는데 콜로세움을 보면 관련설명이 옆에 붙는다든지, 해리포터의 팬인 딸아이를 위해 가상세계에서 마법학교 건물을 지어 선물한다면 어떠할지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카메라를 증강현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VR 채팅을 한다든지 증강현실로 가기 위한 많은 기술이 추가되며 페이스북 플랫폼은 진화될 예정이다.

그림31 해리포터 집으로 변한 가상의 집



자료: 페이스북,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소셜VR- 페이스북메신저로 VR채팅



자료: 페이스북,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스노우'와 흡사한 꾸미기 기능 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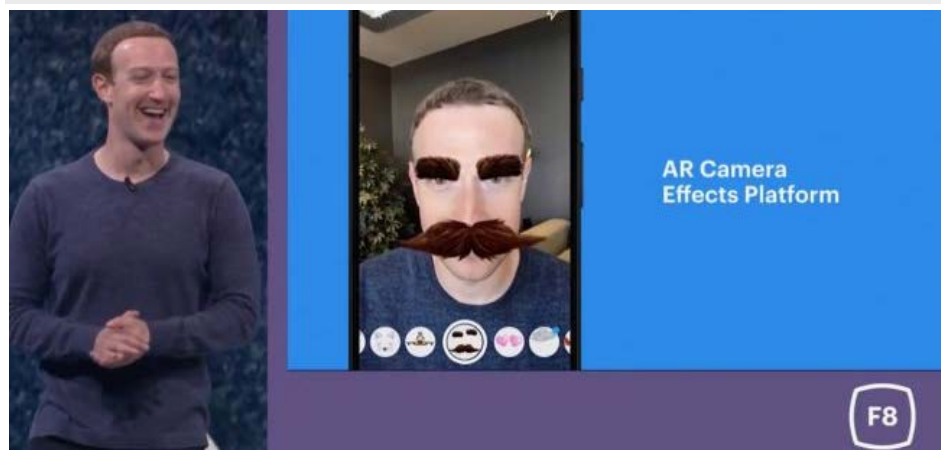
'AR 카메라 이펙트 스위트(AR Camera Effects Suites)'는 사용자의 사진과 동영상에 3D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결합할 수 있는 VR 기술이다. 인스타그램과 메신저에 추가해 '스노우'와 같은 기능을 이용해 뉴스피드를 꾸밀 수 있다. 광고주도 활용 가능하며 나이키, 아수스, 세포라, 기아자동차 등에 VR도구를 베타테스트로 제공한 바 있다.

그림33 AR Camera Effects Suites - 광고에 도입



자료: 페이스북,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4 마크 주커버그 - AR 카메라 효과 시연



자료: 페이스북,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영상과 그룹채팅 도입

인스타그램에는 최대 4명이 참여하는 영상 + 문자 채팅 기능이 도입된다. 채팅을 하면서 인스타그램 콘텐츠 탐색도 동시에 가능하다. 또한 왓츠앱에는 '그룹 통화(Group Calling)' 기능이 추가된다. 참고로 페이스북 메신저앱의 MAU(Monthly Active Users)는 12억 명으로 전통 소셜네트워킹 '페이스북'에서 메신저(커뮤니케이션)로 역량을 확장, 광고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림35 페이스북 메신저와 인스타그램에 비디오 채팅 도입



자료: 페이스북,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4명까지 비디오 채팅 가능



자료: 페이스북,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3. Oculus Go 출시, VR 대중화 원년

독립형 VR 헤드셋
'오쿨러스 고' 출시

페이스북은 이번 F8 행사 시점에 맞추어 독립형 VR 헤드셋 '오쿨러스 고'를 출시했다. '오쿨러스 고'는 PC나 스마트폰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헤드셋이다. 스마트폰에 오쿨러스 앱을 연동해야 작동 가능하지만 독립된 기기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가격 또한 32GB 약 23만 8천원(199달러), 64GB 약 29만 8천원(249달러)으로 기존 오쿨러스 리프트에 비해 저렴해 접근성이 제고되었다.

마크 주커버그 CEO는 "오쿨러스 고는 저렴한 고품질의 VR 헤드셋"이 될 것을 강조했다. '오쿨러스 고'와 함께 '오쿨러스 룸(Oculus Room)', '오쿨러스 TV(Oculus TV)', '오쿨러스베뉴(Oculus Venues)', '오쿨러스 갤러리(Oculus Gallery)'를 공개했다. '오쿨러스 룸'은 기어VR을 위해 출시되었으며 보드게임이나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오쿨러스 TV'는 생방송 및 온디맨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가상 TV 스크린을 제공하며 여름 출시 예정이다. 최대 4명의 친구와 가상의 '워치 파티(Watch Party)'를 통해 2D 또는 3D 콘텐츠를 실시간 함께 볼 수 있는 가상현실 극장이다. 넷플릭스, 훌루, 쇼타임 및 페이스북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채널 ESPN+이 추가된다.

그림37 오쿨러스 고 (Oculus GO)



자료: 오쿨러스,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8 오쿨러스 룸 (Oculus Room)



자료: 오쿨러스,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오culus 베뉴’는 라이브 실황 공연을 VR로 감상,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능이다. 올 하반기부터 오culus 고와 삼성 기어 VR에 지원되며 라이브 콘서트, MLB 및 MBA 경기, 독립 코미디 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오culus 갤러리’는 가상현실에서 친구들과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 다양한 미디어를 쉽게 공유하고 함께 감상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다.

그림39 오culus 베뉴(Oculus Ven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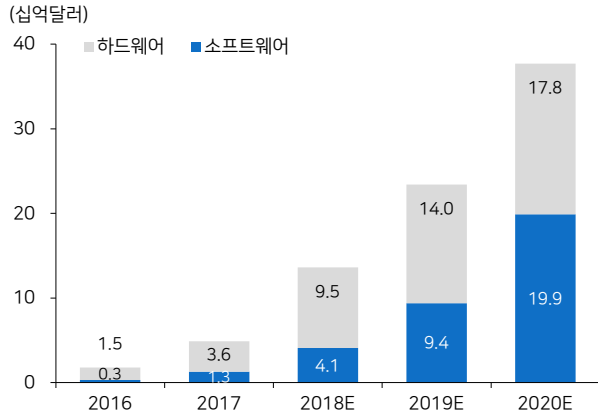
자료: 오culu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VR Device의 종류와 특징 비교

구분	Oculus GO	HTC Vive pro	Gear VR with controller	Sony PS VR (신모델)	Mirage Solo	폭풍마경5
이미지						
제조사	Oculus	HTC, VALVE	삼성전자, Oculus	Sony	Lenovo	북경폭풍마경 과학기술유한공사
해상도(DPI)	2560 X 1440	2880 X 1600	2560 X 1440	1920 X 1080	2560 X 1440	1920 X 1080
플랫폼	독립형	PC플랫폼 전용	모바일 전용	콘솔게임기(PS4) 전용	독립형	모바일 전용
출시일	2018년 5월	2018년 3월	2017년 4월	2017년 10월	2018년 4월	2016년 6월
가격	199달러(32GB), 249달러(64GB)	799달러(헤드셋 단품)	180달러	399달러	449달러	499위안(약 78.5달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스마트폰 연결 없이 무선 이용 가능 Wi-Fi 접속 및 스마트폰 오culus 앱 연동 필요 스피커 내장 독자 앱 '오culus TV', '오culus 룸', '오culus 베뉴' 등 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이스 스테이션 및 컨트롤러 별도 구매 기본 패키지는 유선, 하반기 무선 어댑터 (별도 액세서리) 추가 예정 VIVEPORT 및 STEAM VR을 통해 2천개 이상의 콘텐츠 및 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작 인식 가능한 전용 컨트롤러 포함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 스마트폰과 연결 가능한 터치스크린 (보조입력장치)을 액세서리로 지원 1,000개 이상의 콘텐츠 및 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VR 사용에 필요한 PS 카메라 포함 헤드셋 후면에 헤드폰 단자 추가, 복잡한 배선 구조 단순화해 외형 깔끔하게 정리 300여개의 전용 소프트웨어 타이틀 및 콘텐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션 컨트롤러 포함 PC/스마트폰 연결 없이 무선 이용 가능 구글의 데이드림 플랫폼 적용 VR콘텐츠 제작 도구 '미라지 카메라'로 실시간 스트리밍 및 이미지/동영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드로이드4.0 이상 모든 스마트폰과 호환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스마트폰 앱 원격조작 안경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 가능 내부 QR코드를 통해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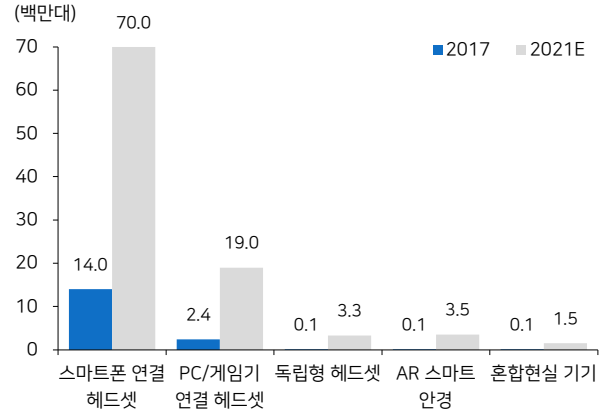
자료: 각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0 글로벌 VR 시장 규모



자료: BI Intelligenc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1 VR/AR 기기 판매 전망



자료: CCS Insight,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표2 사업 분야별 발표 내용 요약

사업 분야	주요 내용
페이스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이스북 활동 히스토리 삭제 기능(Clear History) 개발 어떤 웹사이트나 앱이 이용자의 정보를 페이스북에 전달하고 있는지 이용자가 직접 확인 가능 원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의 계정에서 삭제, 향후 계정과 연관된 정보를 페이스북이 보관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 스포티파이 등 사용자가 좋아하는 앱의 내용을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토리(Stories)에 공유 스포티파이 앱 사용 중 공유 버튼을 누르면 듣고 있는 음악의 이미지를 바로 인스타그램 스토리/페이스북 피드에 업로드 가능 페이스북 그룹 개편, 콘텐츠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편하며 그룹 탭에서 새로운 그룹을 찾아 가입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예정 '데이트 프로필' 도입, 페이스북 앱 내 데이트 상대 매칭 서비스 도입 위기 상황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 도입, 인도/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지에서는 현행 장소 제공 기능 도입
인스타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 카메라 플랫폼 'AR 스튜디오'를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에서 비디오채팅 가능, 1:1 대화 및 그룹 채팅도 가능 추천 콘텐츠를 연관된 토픽별로 묶어 제공하는 새로운 탐색 기능 제공
왓츠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그룹 통화 기능 도입. 그룹 음성 및 영상 통화 가능
메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 카메라 효과를 메신저에 적용할 수 있는 AR 메신저플랫폼 기능 비공개 베타 버전으로 출시 사용자들이 가상으로 물품을 입거나 신어보고, 기타 재미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음 메신저 인터페이스 개편, 새로운 기능 제공 위해 UI 간소화
마켓플레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이스북의 물건 판매 장터 마켓플레이스에 M번역 도입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할 때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메신저 메시지를 받게 되면 번역 필요 여부 확인 후 번역 미국 마켓플레이스부터 영어-스페인어 번역 기능이 적용되며 점차 확대 예정
V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culus의 첫 독립형 VR 헤드셋 오culus 고(Oculus Go) 출시. 가격은 32GB 약 23만 8천원, 64GB 약 29만 8천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23개 국가에 판매 VR 경험 공유를 위한 앱 오culus 베뉴(Oculus Venues) 공개.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중계 가능 VR 소셜 플랫폼 오culus 룸(Oculus Room) 출시. 친구와 함께 보드게임이나 영화를 즐길 수 있음 오culus TV는 생방송 및 온디맨드(On-Deman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가상 TV 스크린을 제공. 올 여름 출시 예정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바둑 프로그램 '엘프 오픈고(ELF OpenGo)' 공개 개발자들을 위해 이미지 인식과 48개 언어에 대한 자동번역 등의 기능이 탑재된 오픈소스 AI 프레임워크 공개

자료: 페이스북,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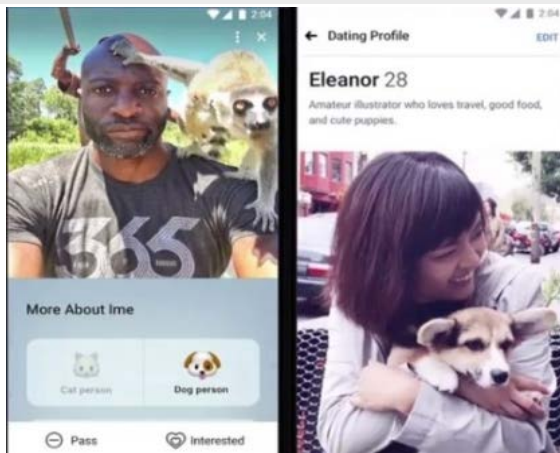
4. 소셜 데이팅 시장 진출

온라인 데이팅 시장 진출

'F8 2018'에서 페이스북은 연내 온라인 데이팅 시장 진출을 밝혔다. 데이팅 시장 진출 이유는 1) 데이팅 시장의 성장과 2)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정면 대응하며 페이스북의 네트워크 파워를 활용해보겠다는 뜻에서 비롯된다. 페이스북은 데이팅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기본 프로필과 별도로 데이팅을 위한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취향, 공통점, 친구 관계 등에 따라 어울릴만한 상대를 노출해주고 매칭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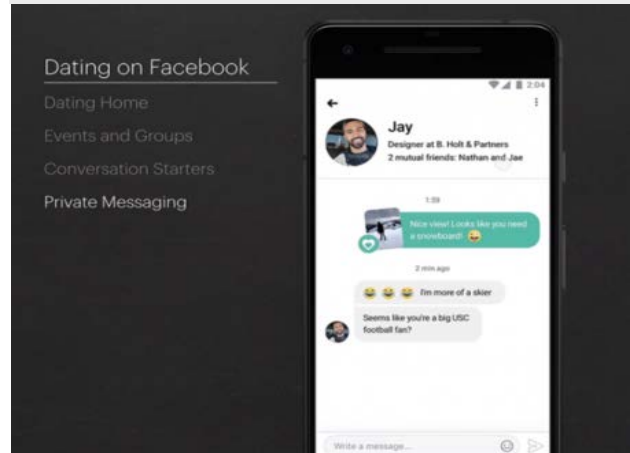
마크 주커버그는 "미국 결혼 커플의 3분의 1이 온라인 만남을 통해 시작했고, 페이스북의 사용자 중에서 약 2억 명이 프로필 상태를 '싱글'로 표기"했다며 데이트 기능은 설계 시작부터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염두해 개발되었다고 강조했다. '데이트 프로필'은 하반기 베타 테스트 예정이며, 기존 페이스북에 기능으로 추가될지 또는 메신저처럼 연동되는 새로운 앱으로 출시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림42 '데이트 프로필'-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과 관심사 조회



자료: 페이스북,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3 '데이트 프로필'- 메신저 형태의 대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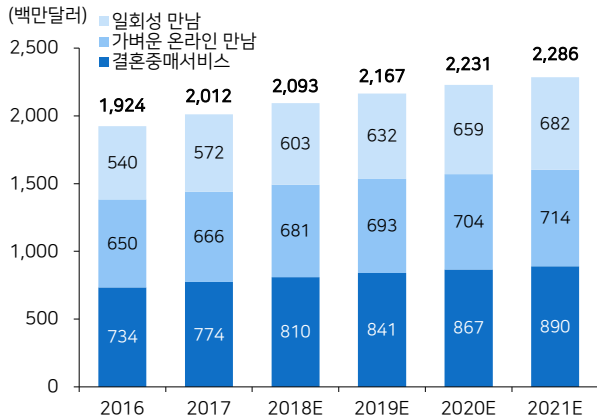


자료: 페이스북,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매치그룹은 대표 데이팅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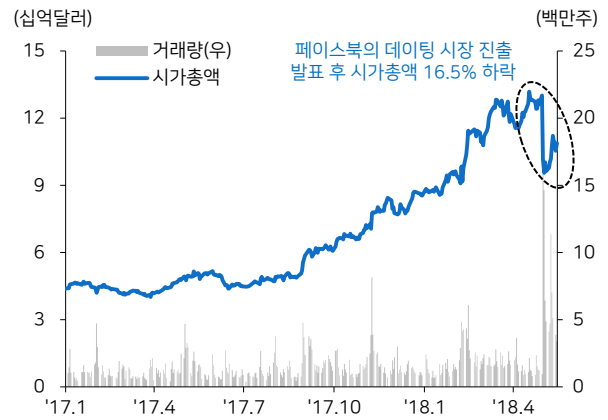
미국 데이팅 서비스 대표 회사는 매치그룹으로 2017년말 기준 190개국 이상에서 700만명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5월 페이스북의 데이팅시장 진출 발표 이후 기업가치는 16.5% 하락하였다. 참고로, 2017년 미국 데이팅앱 시장 규모는 결혼중매, 일회성 만남 등을 포함하여 약 20억 달러로 추정된다. 데이팅앱의 수익은 서비스 유료구독과 특정 기능 인앱 결제를 통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내 프로필을 조회한 상대를 확인한다거나, 부스트 기능(프로필 우선노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해야 한다.

그림44 미국 데이트 서비스 시장규모 - 2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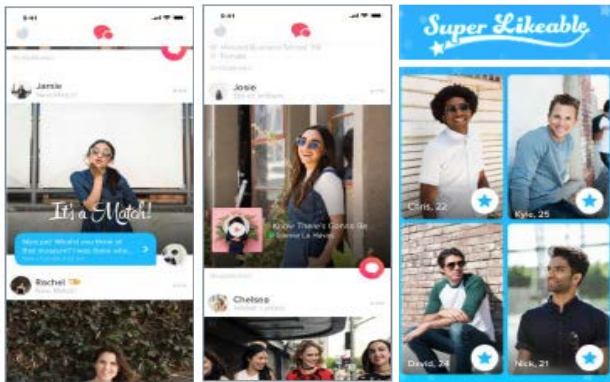
자료: Statist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5 매치 그룹 시가총액 - 페이스북 발표 후 16.5%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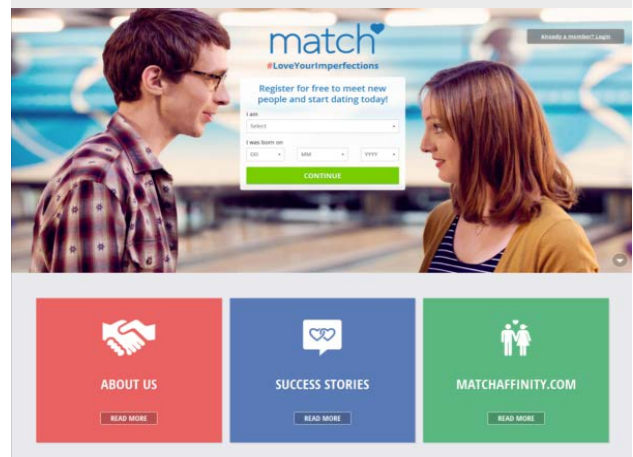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6 틴더(Ti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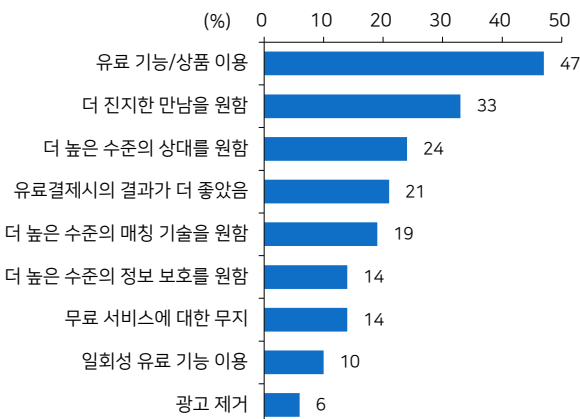
자료: Match Group,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7 매치(M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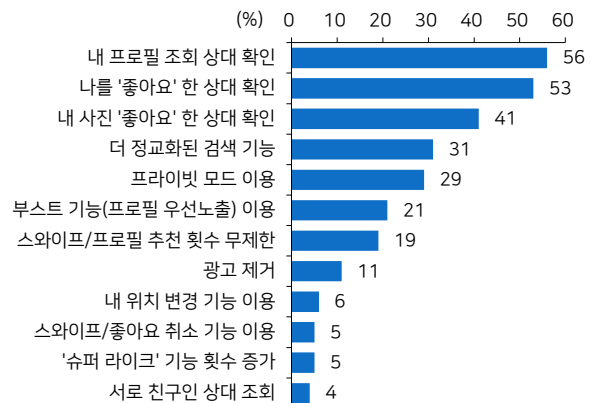
자료: Match Group,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8 데이트 앱 결제 이유



자료: JP Morga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9 데이트 앱 결제를 유도하는 요인



자료: JP Morga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5. Fake News와의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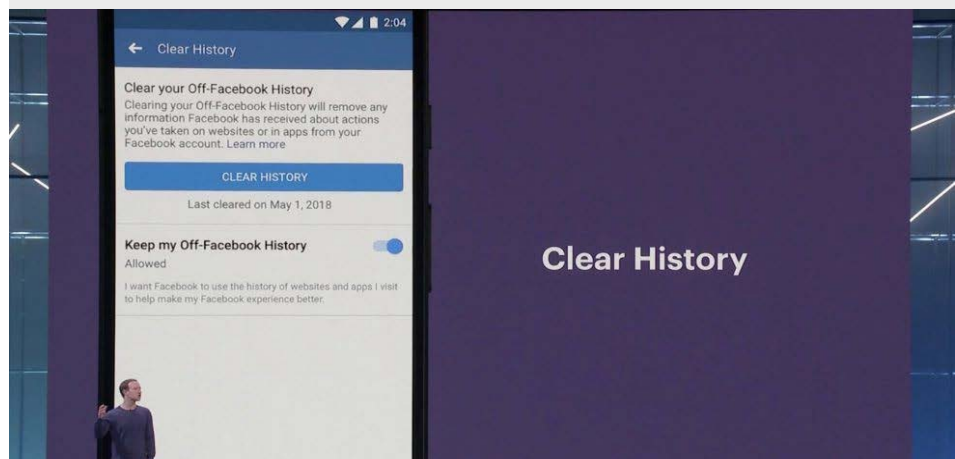
Data Privacy

페이스북 역시 국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뉴스 서비스'와 '개인 정보 이슈' 등과의 갈등을 겪으며 더욱 발전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페이스북 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었고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지속되며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마크 주커버그가 적극 해명하고 개선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우선 페이스북 내 인공 지능을 도입해 가짜 뉴스/정보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전략이다.

클리어 히스토리 - 쿠키삭제 옵션

인터넷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클리어 히스토리' 옵션도 공개되었는데 사용자가 이용하거나 접속한 서비스를 추적하는 '쿠키(Cookie)와 브라우저 접속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 기록 및 '좋아요'에 대한 데이터는 뉴스피드 추천과 타겟광고에 활용된다. '클리어 히스토리' 기능을 사용하면 페이스북 애널리틱스에서 수집한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사용자 선호도 중심의 게시물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사용자의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광고주에게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 데이터는 제공된다.

그림50 클리어 히스토리 - 쿠키 삭제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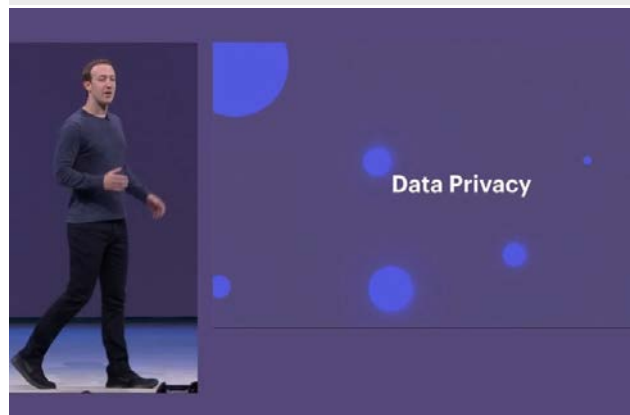
자료: 페이스북,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1 Fighting Fake News



자료: 페이스북,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2 Data Privacy



자료: 페이스북,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III. 국내 인터넷플랫폼의 반전은 언제쯤?

국내 인터넷의 부진

2018년 국내 인터넷기업의 주가수익률은 NAVER -20.9%, 카카오 -20.1%, NHN엔터테인먼트 -3.3%로 부진하였다. 이는 규제 리스크 때문으로 쇼핑/뉴스/웹보드게임까지 규제 리스크가 유지되거나 강화되었다. 또한 국내 인터넷 산업의 비즈니스모델 의존도가 광고수익에 편중된 반면, 글로벌 사업자들은 인공지능/가상현실/동영상/O2O/핀테크로 본격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9일 NAVER는 뉴스편집권을 포기하고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3분기부터 네이버 메인 화면은 구글 검색창과 유사하게 바뀌고 뉴스와 실시간 검색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언론사의 상당수는 1) 뉴스트래픽 수용 능력, 2) 광고수익 사라진다는 점, 3) 댓글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아웃링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한다.

한편, 15일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은 한국 대담회에서 "가짜 뉴스 대응은 어렵고 힘든 문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어떤 뉴스가 가짜라는 것을 발견하면 알고리즘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작하는 것이 실제 사람인지 버튼(매크로 프로그램)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며 "가장 강력한 필터링은 사용자인 인간의 비판적 사고와 판단능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전이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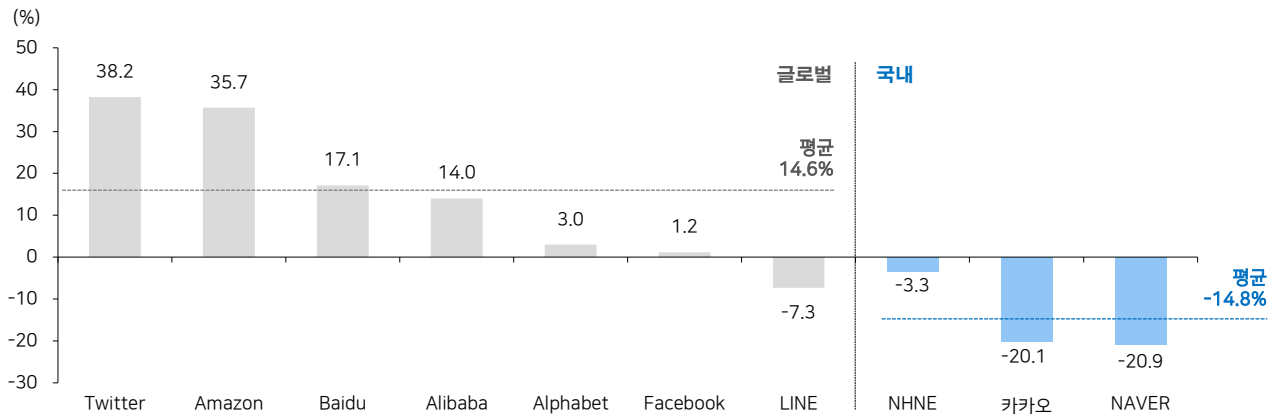
하반기 국내 인터넷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는 상반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지방선거 이후 규제이슈가 일단락될 가능성, 2) 글로벌 인터넷 산업이 AI/VR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어 동반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 3) 카카오는 3분기 카카오게임즈 상장을 기점으로 자회사의 가치 재평가 시기로 본격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53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



자료: 언론,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4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2018년 주가수익률



자료: Wisefn,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NAVER의 뉴스정책 변화

1차 개편안

(2018.4.25 발표)

항목	세부 내용	
	기존	변경 후
기사당 작성 가능 댓글 수	ID당 하루 20개	ID당 하루 3개
댓글 작성 간격	10초	60초
공감/비공감 가능 횟수	무제한	ID당 24시간 이내 50개
공감/비공감 간격	없음	10초
댓글 어뷰징 방지	-	AI 기술 도입 사용자 패턴 학습해 어뷰저 감별



2차 개편안

(2018.5.9 발표)

항목	세부 내용
모바일 첫 화면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 제외, '검색판'으로 개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차트 모바일 첫 화면에서 제외
뉴스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분기부터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뉴스판' 신설 언론사별 뉴스 노출, 사용자가 언론사 선택 뉴스판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은 수수료를 제하고 언론사에 지급
뉴스피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뉴스 추천 서비스 '뉴스피드판' 운영 개인 관심사를 기반으로 '에어스'(AIRS)가 뉴스 선정
댓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사별 댓글 허용 여부 및 정렬 기준은 언론사가 직접 결정 NAVER ID가 아닌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의 댓글 작성 제한 동일 전화번호 가입 계정 통합 댓글 제한 반복성 댓글 및 비행기 모드를 활용한 IP주소 변경 댓글 입력 제한
어뷰징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루킹 사건으로 논란이 된 매크로(자동프로그램) 24시간 감시
아웃링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웃링크 방식 전환 적극 추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일괄 도입 대신 언론사와의 개별 협의를 통해 도입

자료: NAV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중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5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5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동희, 윤을정)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종가대비 4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5% 이상 ~ +20% 미만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 +5%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미만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비중확대)	
	Neutral(중립)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96.0%
중립	4.0%
매도	0.0%

2018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